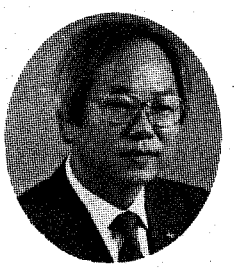
주의해야할 노인의 귀병

무더운 여름철에는 예사병에도 유의



金 基 鈴
〈연세医大 교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젊었을 때와는 달리 신체 여러 기관의 기능이 위축되거나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신로심불로(身老心不老)라고 이르듯이 인간은 늘 독야청청(獨也靑靑)하기를 바라는 동시에 자신이 늙었다는 생각을 잊으려고만 한다.

바야흐로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한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도 70세를 바라보게 되었으니 기꺼운 일이거니와 우리는 나이를 먹어 갈수록 평소의 섭생에 더욱 유념하는 동시에 자신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각별한 주의를 쏟아야 한다.

이비인후계 질환 중에서 특별히 계절적인 노인성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날씨가 무덥고 주위환경이 오염되기 쉬울 뿐 아니라 몸이 나른하고 위생과 건강상태가 고르지 못한 여름철에는 예사병도 악화되는 수가 있으며 이런 뜻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몇몇 질병을 들을 수가 있다.

첫째로 외이도 피부의 위축과 피지선의 변화로 외이도 피부가 말라서 소양증을 유발하기 쉬우며 이소골관절의 초자양변성과 석회화 및 내이 와우기능의 감퇴로 노인성난청을 보게된다.

이밖에도 노령에 따른 점막 및 피하조직의 위축, 근육의 위축 내지는 탄력성의 저하 등으로 콧등이 낮아지고 비익(鼻翼)이 처지므로써 코의 모양이 달라질 뿐 아니라 호흡하기 거북하며, 타액선 기능의 감퇴로 입속이 마르고 혀가 갈라져서 입맛이 떨어지고 구내염과 구각염(구순염) 등이 자주 일어난다.

또한 상기도 점막의 변성과 폐기능이 저하됨으로써 후두 특히 성대의 조직에도 변화를 일으켜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깔깔해지며 말하기도 힘들게 된다. 그렇다고 이와같은 노령기의 자연 노쇠현상을 가리켜 병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고혈압과 동맥경화증 내지는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가지 면에서 기능저하를 촉진시키거나 감염증을 유발하기 쉽고 때로는 이들 질환이 악화됨으로써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건강한 젊은 사람도 때로는 계절적으로 몸이 허약해지거나 감기몸살과 같은 계절병을 곧잘 앓는 것을 보면 하물며 신체기능이 쇠약해진 노인층에 있어서는 하찮은 외이도소양증이나 이명, 구내염, 구미감퇴, 두통, 현기증, 청력감퇴, 후각감퇴, 음성변화 등이 계절적으로 악화될 소지가 많다.

특히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질환들이 잘 치료되지 않을 뿐더러 때로는 악성변화를 일으켜서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를 수가 있으니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비인후과 임상에서 대표적인 노인성질환은 물론 귀의 기능이 떨어져서 잘 듣지 못하는 노인성난청이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터이므로 여기서는 재론치 않겠으며 다만 우리들이 평소에 소홀하기 쉬운 질환으로서 각별한 주위가 필요한 다음의 두 가지 당뇨병성 악성질환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①악성외이도염(惡性外耳道炎)

1968년에 챤들러(Chandler, JR)에 의해서 처음으로 보고된 질환으로서 특히 당뇨병환자의 노인에게서 발병되는 외이도질환중의 하나이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이들 환자의 91퍼센트가 55세 이상의 노인층이였으며 또한 이들의 93퍼센트가 당뇨병환자였음을 감안할 때 일단 당뇨병환자로서 귀병을 앓고 있다면 한 번쯤 이 병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병원균은 녹농균(B. Pyocyaneus)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거의가 특별한 증상 없이 부지중에 발병된다. 초기에는 외이도에 피부염이 생겨서 누런 고름이 나오며 병변이 연골에까지 침식되면 동통이 수반된다. 만일 이때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병변이 외이도 연골절흔을 따라서 아래 쪽으로 퍼져서 유양돌기염이나 측두골염을 합병하게 되며 때로는 두가저면을 거쳐서 안면신경마비나 뇌막염을 일으켜서 위험하게 되며 이에 따른 사망율도 53퍼센트나 된다.

진단은 이상의 증상과 함께 세균배양에서 녹농균이 증명되면 거의 틀림없으며 또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증가와 적혈구 침강속도가 빠른 것도 참고가 된다. 이밖에도 혈액과 뇨검사로서 당뇨병의 유무를 확인할 것이다.

감별진단으로서 만성중이염과 유양돌기염의 합병을 살피는 동시에 외이도상처를 통한 화농균의 감염으로 고름주머니를 만드는 급성화농성 한국성외이도염(이절)과도 감별해야 한다.

치료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동시에 국소적으로는 외이도를 깨끗히 세척한 후에 겐타마이신(gentamicin), 카베니실린(carbenicillin)연고를 발라주며 염증범위가 귀 주위의 연부조직이나 뼈에까지 침범되었다면 환부를 수술하여 크게 도려내거나 유양동 근치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②악성외이도황색종(惡性外耳道黃色腫)

1956년에 Koch, HJ와 Lews, JS는 67세의 남자의 외이도에 발생한 황색의 양성종양을 진단하였는데 이것이 후일에 악성으로 이행됨으로써 측두골절제술을 시행했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황색종이라고 하면 피부내에 지방이 침착되므로써 황색이 구진(丘診)내지는 작은 결절이나 융기를 보이는 경우를 말하지만 이 병이 특히 당뇨병이 있는 노인의 외이도에서 발병되었을 때에는 흔히 이것이 악성으로 진행되어서 위험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임상적으로도 본증의 거의 모든 예에서 당뇨병이 확인되며 또한 본증 환자의 혈액검사에서 과지방혈증(hyperlipaemia)과 콜레스테롤 과잉혈증(hypercholesterolaemia)을 증명할 수가 있다. 이밖에도 피부나 인대(tendon sheath)등에 다량의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측두골의 유양동 전체가 황색종으로 꽉 들어찰 때도 있다.

이런 때에는 외이도의 구진이 터져서 뼈속까지 침식된 육아조직을 보이게 되며 임상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악성외이도염에서와 마찬가지로 염증이 두개저면이나 뇌속으로 진전되므로써 생명이 위험한 때도 있다.

이와같이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보게되는 노인의 당뇨병성 합병증은 외이도의 해부학적 위치관계로 매우 심각한 경우를 초래하기 쉬우며 또한 처음에 열거한 외이소양증, 진균증 등과 더불어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병들이니 평소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병들임을 다시 한 번 일러둔다.

◆악성외이도염은 당뇨병을 치료하는 동시에 국소적으로는 외이도를 깨끗이 세척하고 연고를 발라주며 염증범위가 귀주위의 연부조직이나 뼈에까지 침범되었다면 환부를 도려내거나 유양동 근치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건강의 횃불」 삼일제약

당뇨병성망막증

진보된 현대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치가 되지 못하는 난치병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읍니다. 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해 수많은 미소혈관이 분포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당뇨병이나 고혈압등에 의하여 이들 미소혈관에 병변이 발생되면 다시 정상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망막증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을 취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당뇨병환자는 혈당관리, 고혈압 환자는 혈압관리가 매우 중요한 동시에 각종의 혈관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혈관 보호제를 투여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나 혈압관리가 잘되고 있는 환자도 병력에 따라 망막증의 발병율이 증가되므로 실명의 원인이 되는 망막증의 예방 및 치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읍니다.

당뇨병! 왜! 후루다랜을 복용하는가?

망막증에 대한 후루다랜의 약효입증!

후루다랜®은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약물중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해 임상효과가 입증된 유일한 약물입니다.
최근 당뇨병 및 고혈압의 혈관 합병증 치료제로 유럽에서 각광을 받은 후루다랜의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한 효능을 평가하고자 국내8개 의과대학 부속병원 안과학교실에서 Multi Center Study를 12개월간 실시후 종합평가의 결과 후루다랜은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해 약80%이상이 호전 또는 안정되는 양호한 성적을 얻었으며 또한 내약성도 매우 우수한 약물이라고 보고 했읍니다.
망막증의 초기단계에서 후루다랜을 투여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므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후루다랜은 당뇨병성 백내장, 신경증 및 신증등의 당뇨병 관련합병증에 대해서도 개선효과를 나타낸 바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의 미소혈관 합병증을 치료관리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물입니다.

청구권과 함께 아래 사항을 적어 보내주시면 당뇨병과 합병증에 대한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 : 광화문우체국사서함 351
나이 :
보신 잡지명 :
SP 1